

사슴의 胃腸炎

Gastro - enteritis in Deer

김 찬 규

(통일동물병원)

야생동물의 임상을 10여년간 해오던 동물원 생활을 끝내고 그간 관심을 가져오던 사슴 진료 업무에 종사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사슴은 옛부터 녹용을 채취하여 신비의 보약으로 사용되어 온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녹용생산 목적으로 인공 사육되면서 현금에 이르러서는 가축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숫자도 2만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류도 다양하여 소형사슴인 꽃사슴(시카사슴)을 비롯하여 삼바사슴, 레드디어(적록) 대형사슴인 엘크사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슴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 등 임상분야에서 일해오지만 아직까지 축주들의 사슴에 대한 관념은 우매할정도로 구습에 얽매어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느 축주는 “사슴은 무병한 동물이다” “사슴은 약물을 사용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곤욕스러운 정도의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슴은 아직까지 야성이 남아 있으므로 치료를 위한 보정이 힘들므로 위험도가 수반하는것은 피치못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돼지나 소를 진료하는 수의사가 진료 의뢰를 받았을때 “나는 사슴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 못한다”고 하

는 경우가 많으며, “진료를 소와같이 생각하여 치료를 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사슴에 있어 정맥주사는 놓으면 안되더라”라고 하는 수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의 생태와 생리학적 구조등을 감안하여 치료하면 아주 회복이 빠른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이 가축화되면서 다른 가축 못지않게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선 “위장염”에 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사슴에 있어 위장염은 흔히 어린 자육에서 많이 발병되는데 일찍 이유시킨 사슴일수록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위장기능도 완전하지 못하여 쉽게 소화장애증상을 일으키고 급성 또는 만성으로 위장점막에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원 인

일시에 다량의 농후사료를 많이 먹이거나 거칠고 딱딱한 건초나 변질된 사료를 먹었을 경우나 특히 겨울철에 영하의 기온하에 사료를 물에 버무려 주어 얼은상태의 사료를 먹게하거나 관리부족으로 겨울철에 물을 주지않아 눈이나 얼음덩어리를 먹었을때 많이 발병된다.

때때로 내부기생충의 감염으로 위장점막이 무력해지며 영양손실을 가져와 위장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사양관리의 잘못이 큰 원인으로 특히 사양 급여기준(농후사료:청초, 건초의 급여비율을 1:3로 함)이 잘못되어 위장기능이 미숙한 자육의 경우에 농후사료만 너무 많이 급여하여 오히려 위장이 무력해지므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

설사를 하거나 연변을 보거나 심한것은 수양성설사나 거품섞인 똥을 누거나 혈변을 누기도 한다. 따라서 식욕이 없고 허리가 굽어지며 활동상태가 둔화되며 우울증이 생기고 탈수로 인하여 마르고 털이 꺼칠하다.

때로는 힘을 주어 배변을 하려는 동작을 보이지만 소량의 물똥만이 배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설사가 계속되면 사슴은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운동마저 기피한다. 사슴을 포획하여 진찰해보면 귀, 사지말단부는 냉하고 코등이 건조해 있으며 체온도 하강되고 심음도 불규칙하며 위장음을 청취하면 물흐르는 소리가 대단하고 항문의 수축력도 감퇴되어 있다. 추운겨울에 많이 발병되므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허탈상태에 빠지며 체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치료

우선적으로 보온시설을 하여 보온, 안정시키며 잘 소화되기 쉬운 양질의 녹색건초(아카시아 잎, 칩닝쿨, 갈잎, 싸리잎등)를 급여하고 농후사료의 량은 조금 줄이되 인공유 폐페트를 섞

어 주는것이 좋다. 설사를 하면 어느 동물이든 탈수가 문제가 되므로 포도당, Amino-lite 등 수액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Berberine chloride와 같은 지사, 정장제를 주사하고 위무력증이나 고창증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pelennamine 제제를 주사한다. 또한 세균성을 감안하여항생제나 설파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사료에 Rumen extract나 Zymayeast와 같은 효모제 AL-365와 같은 지사제를 투여하는것은 효과적이다.

결론

사슴의 경우는 주로 6월~8월 사이에 분만되어 3개월 정도되면 이유시켜 분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히 위장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후사료와 건초를 먹게되며 또한 겨울철에 성장기를 맞으며 특별한 보온시설이 없이 사육되기 때문에 흔히 발병되기 쉽다.

오래 방치해 두면 장점막이 탈락되고 장벽이 얇아져서 치료가 힘들어지며 영양흡수를 못해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해지며 탈수가 심하여 허탈에 빠지게되면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

만성화된 사슴의 경우는 성장발육이 안되고 발정기가 되어도 난소발육 미진으로 배란이 되지않아 불임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되도록 새끼사슴은 어미의 젖을 오래동안 먹도록 어미와 합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유후에는 소화가 잘되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급여토록 하며 겨울철에는 소화 및 영양대사 촉진제를 사료에 섞어 투여토록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